

서평 / BOOK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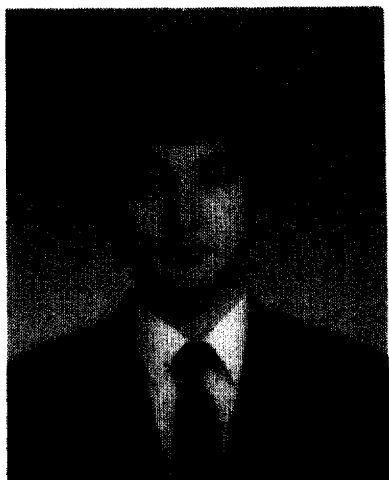
「역사관의 유형」

Patterns in history

김종건

David Bebbington 저 (1979)

천진석 · 김진영 역, 두란노, 1986



김종건

안동고, 경북대 사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동양사 전공)을
수료하고 현재 학위 논문 준비 중이며, 경북대, 효성여대 등
에 출강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회원이며, 대구 송
정교회 집사로 봉사하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를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역사관 내지 역사철학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결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는 대체로 순환사관, 정체사관, 발전사관으로 요약된다. 그 중 가장 보편화된 사관인 발전사관의 경우는 역사발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로 분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역사학을 연구할 때는 이들 기존 학설의 압력 속에서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인과 역사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역사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역사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날까지 섭리하신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과정에 대한 기왕의 여러 견해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은 자신의 역사관과 기독교적 역사관과의 연계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역사관을 비이성적인 것으로까지 무시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때 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의 최대 숙제는 역사관을 분석·정리하여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역사학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기존의 대표적인 역사관들에 대하여 대체로 원전 인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그들 각각의 논리적 근거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각 역사관들의 내용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역사관들을 관념론과 진보론으로 대별하고 이 두 관점간의 충돌을 기독교 역사관을 통해 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독교적 역사가들이 역사학 연구와 역사서술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해답을 주고 있다.

이 책의 본문은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역사과정과 역사서술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에 주목하고, 그 주요 원인이 사료에 대한 신뢰성의 한계, 역사가 자신의 주관개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서술은 불가능하므로 역사 지식은 확실성 보다는 가능성의 범주라고 보았다. 진실만을 다루는 역사나 주관만을 다루는 역사는 없으며, 역사가는 역사서술에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도 투영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역사가 역사 서술자의 문학적, 관념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역사의 이해에 있어서도 역사가의 관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전제 하에 이 책에서 소개할 대표적 역사관 다섯 가지를 먼저 개관하고 논지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였다.

2장 ‘순환적 역사관’(Cyclical history)에서는 역사가 수레바퀴처럼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고 보는 역사관을 소개하였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생로병사, 자연의 계절 주기 등과 유사하다는 인식에서 순환론이 확산되었으며, 역사가 과거 실락원에서부터 현재의 타락까지 몰락해 왔다고 보는 특징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중국, 인도, 오리엔트, 그리스, 로마인들의 순환론으로부터 르네상스기의 순환론과 니체, 스펡글러, 토인비의 역사관까지 들고 있다. 그러나 역사가 황금 시대부터 계속 타락해 왔다는 순환론은 상상에 가까운 것으로서, 증명하기 곤란하며, 도덕적인 면에서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등 반론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했다. 또 버질(Virgil), 보태, 토인비 등 일부가 낙관적 순환론을 표방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순환론자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봄으로써 인간 실존의 무용성을 낳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부 낙관적 순환론으로 수정한 사람들에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적 역사관의 영향이었음도 강조하였다.

3장 ‘기독교적 역사관’(Christian history)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관여하여 그가 예정한 종점까지 일직선으로 이끈다는 계시론적 역사관을 다

루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역사관을 간추리고 초대 교회 시대 이래 중세·근대까지의 기독교적 역사관의 요점과 논쟁들을 정리하였다. 기독교적 역사관에서는 소망에 대한 강조, 즉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지배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기대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기독교 역사관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천년왕국론과 같이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다는 사상은 일반 계시론과 모순되며, 또 국가적 이해 관계에 신의 계시적 개입을 이용하는 것도 위험스런 논리라고 보았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모두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도 강조했다. 아울러 심판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답에 관한 언급을 마지막 장으로 미루고 있다.

4장 '진보사상'(The idea of progress)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나타난 진보사관을 정리하였다. 계몽주의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지만 역사를 직선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며 불변의 도덕적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원초적으로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출발한 것이며 기독교 사관의 세속화 결과라고 보았다. 기독교적 역사관을 해체시키고 진보사관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계시 대신 인과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계시신앙이 인간의 발전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게 만든다는 등 제대로 발전한 진보사관은 기독교적 토양 위에서 성장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절대회의론, 경험주의, 감각주의에 의해 인간천성이 불변이라고 확신하고, 역사의 목적이 인간 학문을 창출하는 것이며, 진보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며, 진보는 끝없이 계속되리라고 믿는 진보사상가들의 역사관들을 간추려 정리하였다. 아울러 액톤(Action)과 같이 기독교적 역사관과 진보사상과의 통합을 시도한 예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물질적 발전은 인정되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 인간 자유의 강조가 미래 역사에 대한 필연성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역사를 진보의 과정이라고만 볼 경우 현재 개개인의 삶이 미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의 삶이 특정 권위의 도구로 희생될 위험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5장 ‘역사주의’(Historicism)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독일 역사학을 주도해 온 역사주의를 정리하였다. 역사주의는 모든 문화가 역사에 의해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모든 집단의 관습과 신념은 그 집단의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여기며, 민족을 강조하고 전통을 존중한다. 이성을 초월한 인격 내재적 개념인 ‘감정이입’(感情移入)과 ‘이해’(理解)를 중시하므로 진보사관과는 본질적으로 모순된다. 저자는 역사주의가 종교적 경건주의, 골동품학, 백과사전식 각주의 전통, 관념철학과 낭만주의 등 당시 조류의 영향하에 등장하였고, 각 집단의 개별성, 문화적 상대주의를 표방한 결과 애국주의의 물결과 더불어 민족주의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 역사주의 역사가들이 ‘실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최대 과제로 생각했고,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에 대한 분석도 중시하였으며, 역사가가 서술대상과 동일화되어야 한다고 여겼음도 주목했다. 그러나 저자는 역사주의가 인간과 역사 상황의 개별성을 너무 강조한 결과 인간 본성의 ‘항상성’(constancy)을 간과한 점, 역사가의 직관이 과거인의 정신세계에까지 접근가능하다는 무리한 논리, 역사과정을 민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위험성 등을 지적하였다.

6장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그의 동료나 적들 모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소개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형성 배경을 특히 헤겔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르크스와 엥겔스 및 그 계승자들의 역사이론들을 정리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며 인간행위의 기본 형태가 생산이라는 전제에서 생산양식과 생산력이 역사과정 전체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저자는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요소를 제외한 다른 사고를 배제하는 주장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했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이 예술적 성취의 결정적 용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민족주의와 같은 많은 사상의 본질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점, 마르크스주의의 사고가 개별

경제적 이익과 무관할 때 역동성이 저하되는 점 등,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수단이 도덕인데 생산력과 같은 비도덕적인 요소로 진보를 측정하려 시도함으로써 도덕이 쇠퇴한 미래를 설정해, 결국 인간에게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제공하였다고 결론지었다.

7장 ‘역사편찬의 철학’(The philosophy of historiography)에서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에서 계승되는 역사서술에 관한 양대 전통을 다루었다. 즉 관념론(반실증주의, 해석학적 변증주의)적 접근과 현실주의(실증주의, 경험주의)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후자가 역사를 과학으로 간주하여 법칙을 도출하려한 반면, 전자는 역사의 비과학성을 전제하고 역사과정의 자유를 강조했다. 후자가 증거자료의 제시를 강조하고 인과를 증명한 반면, 전자는 이해와 공감을 강조하고 역사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유를 중시했다. 실증주의는 계몽주의와 진화개념을 계승하였고, 관념론은 역사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사가들은 실증주의에 기울고 예술사상가들은 관념론을 중시하는 경향이며, 실증주의는 좌익적 요소로, 관념론은 우익적 요소로 대표된다고 보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양면성이 지적된다. 즉 자연인 **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지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상이 제시된다고 주목했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또 그 환경의 조성자도 될 수 있다는 전체적 관점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양자택일적 역사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결합되어질 때 역사편찬에 관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8장 ‘역사의 의미’(The meaning of history)는 결론 부분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인간,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동시에 파괴자인 인간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진 동시에 자유에 규제를 받는 극단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쉽게 이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역사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진보사관이 증명하지 못한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약속으로 보증해 준다는 점을 강

조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축복까지 인간사의 미세한 모든 부분까지 개입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적극 개입의 대표적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유형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아울러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가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게 된다. 저자는 역사가에게 우선 겸손이 요구된다고 전제하였다. 신의 의지를 과도하게 드러내다 보면 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을 쉽게 무시해 버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할 때 찬사와 비난을 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도 언급하고 있다. 역사는 그릇된 행동이 용납될 수 없음과 동시에, 역사가가 잘잘못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는 양면성의 문제이다. 결국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과거 인간상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 역사가에게 대두되는 또 하나의 과제인 학술적 관심과 종교적 헌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고 있다. 종교적 공동체를 위한 서술이라면 섭리론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반적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역사가에게 수사학적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역사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섭리적 역사와 그것을 접하는 일반 대중들과의 사이에 놓일 장애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그가 쓰는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기독교적 연관성을 가진 가운데 기독교적 산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내용은 직설적이기 보다는 암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진 역사가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관하신다는 신념을 드러내는 변증적 과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선교적 과업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책은 그의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에 철저히 근거하여 저술되었다. 기독교 역사관을 직접 언급해야 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그

리스도인의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섭리사관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지 않고 암시적인 시사로 일관하였다. 여러 역사관들의 특징과 중요 약점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독교 사관에 있다고 마무리 하는 그의 결론 부분은 그래서 더욱 강한 공감을 준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역사의 의미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인 역사가가 세속적 역사관의 틈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난제에 대해서까지 분명히 정리해 주고, 저자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이 책에서 직접 보여 준 점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비록 앵글로색슨적 전통에 기울어 있는 느낌은 들지만, 방대한 인용문들을 번거러울 정도로 일일이 소개하면서 논리를 전개한 점이 실증주의적 역사관의 경향이라면, 그러한 모든 명제들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음을 주목하고 그 논리의 한계에 대한 변증에 천착한 것은 관념론적 역사관의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한 논리상의 극단을 오가면서도 신의 계시와 섭리에 필연 연계됨을 인식하고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종합하여 결론짓고 있는 마무리 부분은 이 책에 생명력이 부여되는 또 하나의 창조의 순간이라고 보고 싶다. 저자의 희망대로 모든 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이 학문적으로나 섭리적으로나 성숙된 역사의식을 견지함으로써 양 방면의 괴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궁극적 봉사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